

遺事卷 第四 寶壤梨木條에는 淸道 雲門寺(初 鵝岬寺)創建由來와 創建主 寶壤師 및 그의 상좌인 龍子 離目에 관한 재미있는 傳說이 실려 있고 이와 관련된 奉聖寺의 기록이 또한 재미있다.

〈云云〉 初師入唐廻、先止于推火之奉聖寺適太祖東征之淸道境、山賊嘯聚于犬城、驕傲不格、太祖至于山下、問師而易制之述、師答曰、夫大之爲物、司夜而不司晝、守前而忘其後、宜以畫擊其北、祖從之、果敗降、太祖嘉乃神謀、歲給近租五十碩、以供香火、是以寺安二聖眞容、

因名奉聖寺、後遷至鵝岬云云

高麗太祖 王建이 親征軍을 이끌고 廢亡해가는 新羅의 內政을 平定하기 위하여 지금의 慶北 淸道境에 이르러 犬城(지금 密陽華岳山 東쪽에 있는 한재라는 險한 고개)——犬城→大城→한재——을 넘어러 할제 수많은 山賊이 길을 가로막는지라太祖는 하는 수 없이 親히下山하여 그때 唐에서 돌아오는 길에 奉聖寺에 머물어 있는 寶壤師에게 山賊다스리는 罪를 물었다. 寶壤이 術策을 일러주므로 그대로 마랐더니 賊은 과연 降服해오고 無事히 길은 되었다. 太祖는 그 神謀에 탄복하고 그 恩義에 보답하기 위하여 每年 近縣의 租穀 五十碩을 이 절에 받치고 寶壤과 그의 上座 離目(二聖)의 眞容을 모시게 하여 절 이름을 奉聖寺라 하였다. 그 뒤 寶壤師는 雲門山에 들어가 鵝岬寺(至今의 雲門寺)를 세우고 西紀 九三五年(後唐淸泰四年)에는 麗太祖로부터 雲門禪師의 賜額을 받았다는 다. 이로 미루어 보아 奉聖寺는 雲門寺보다 먼저 創建된 既成寺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다만 奉聖寺란 由來가 불기 전에 寺刹名을 考究할 길 없음을 유감된 일이다. 또 同書同條에는 〈興石峴備虛師——一作毗虛——爲昆弟、奉聖石峴雲門三寺、連峰櫛比、交相往還爾云云〉하여 奉聖寺의 위치를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 셈이다. 金谷里에서 始脈한 龍岩山이 至今石骨寺(舊石峴寺)後山인 山內面 日出峯에 이어 있고 그 봉우리는 다시 淸道 雲門山에 連結되어 있으므로 이事實은 三寺의 連峰이 櫛比한 가운데 寶壤과 石峴의 備虛師가 서로 兄弟를 맺어 의종계 지내면서 連峯을 오르내리고 雲門、奉聖의 山門을 왔다갔다 했다는事實을 合理化하는 것이고 興味있는 일이기도 하다. 끝으로 近方의 地名과 奉聖寺와의 關

係인데 이 경우에는 極單純한 結論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절터의 아랫쪽 땅을 일컬어 〈봉송지〉라 한다하니 〈봉송〉은 〈奉聖〉의 訛音이오 〈지〉는 곧 〈址〉로서 〈봉송지〉는 〈奉聖寺址〉로 용이한 理解가 되기 때문이다. 또 〈奉聖址〉라 하는 것이 傳來하는 固有의 우리 말이 아니므로 正確하게 불여진 이터한 漢字地名의 歷史의 背景을 考察할 수도 있고 奉聖寺에 대한 廢寺의 年條까지도 研究해 볼 수 있는 문제이나 後考로 미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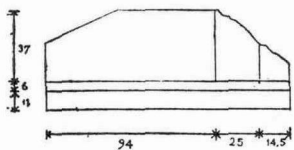
追記 三國遺事卷二 惠恭王條에 〈先時宮北厠靑中二莖蓮生、又奉聖寺田中生蓮〉이란 것이 있고 小書 孝恭王條에도 〈光化十五年壬申奉聖寺外門東西二十一間鵝巢〉라는 대목이 있으며 小書 栢栗寺條에 또한 〈主持僧移住奉聖〉하여 각각 奉聖寺에 대한 記錄이 보이니 이는 新羅 慶州近郊에 있었던 成典寺刹인 奉聖寺를 이름이오 推火 奉聖寺와는 여러가지 史實로 미루어 보아 無關한 것임을 덧붙여 밝혀둔다.

資 料

安東 場基洞 博塔址

秦 弘 燮

安東郡 北後面 場基洞 벽절部落 西北約 1km 地點에 磨崖 三尊像(本文參照)과 博塔址가 遺存한다. 塔은 完全히 倒壞되었고 基壇마저 破壞되었다. 遺址에는 基壇 面石으로 보이는 花崗石材 三石이 있고(二石은 倒置、一石은 策臺에 埋沒)博이 散在한다. 花崗石材中 一石은 長一三·五cm、幅五四cm 厚一五cm며 가로 세로 물딩이 있다.(圖面) 다른 二石은 長一一·五cm며 그中 一石의 幅은 四五cm였다. 博은 一六×一四·五×五·三cm와 一一·八×二一·三×五·三cm의 二種이 確認되었는데 一角에 小圓孔을 貫通시킨 點이 注目되었다. 또 이 附近에서 唐草文樣의 암



막새 破片이 發見되었다.  
이 塔은 永嘉誌에 보이는 「月川 甄塔」으로 推定된다.  
그 位置를 明示하되 「在 瓮泉 驛 南 玉山 之 北」이라 있는데 벽  
절 部落은 中央線 鐵道가 通過하는 瓮泉 部落 南方에 位置  
하며 塔址 後山이 玉山임으로 「月川 甄塔」에 비겨도 無妨  
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永嘉誌에는 「五層中有石佛」이  
라고 있어 原來五層이었던 모양이고 「石佛」은 地表上에  
서는 찾을 수 없다.

原城 上院寺 石塔 發見의 金銅佛 四軀

李 浩 官

一九六四年 五月 八日 江原道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雉岳山 所在 上院寺  
境內의 右側 石塔 補修時에 塔身에서 住持 印 철수氏에 依하여 金銅佛 四軀  
가 發見되었다는데 몇層塔身에서 發見된것인지는 確實치 않다. 사진에 나  
타난 것을 보면 觀音菩薩坐像, 仁王像, 阿彌陀佛立像, 釋迦如來立像의 四  
軀인데 藏置狀態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遺憾이다. 觀音菩薩坐像은 花冠  
을 썼으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손을 그 위에 얹었고 오른쪽 발  
옆에는 淨瓶같은 것이 놓여 있다. 仁王像은 頭光이 있고 오른쪽 손에는  
武器類를 들고 있는 것으로서 이 두 佛像은 大體의 으로 그 手法에 特異  
한 點은 없다. 釋迦如來立像은 蓮臺위에 直立하였으며 別로 損傷이 없  
는 完形에 가까운 佛像이다. 阿彌陀佛立像은 다른 佛像三軀와는 달리  
注目되는 것으로 그 크기가 가장 크며 蓮臺에 舟形光背를 갖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光背는 上部가 破損되어있는 部分이 보이거나 佛像自體는 完形  
이다. 사진으로 보아 釋迦如來立像이나 阿彌陀佛立像의 製作手法이 매  
우 優秀하여 新羅佛佛으로 推測된다. 이들 四軀의 佛像에 對한 자세한  
內容에 대하여는 現地調查後 紹介될 것이다.

考古美術 뉴스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八次)

八月三日 文財政局 會議室에서 石窟庵調查團報告에 이어서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李弘植 金載元 金元龍 黃壽永 外 局課長. 附議案 如左  
一、補修關係

가, 傳首靈王陵同王妃陵補修費 可決

나, 丁茶山遺蹟補修費 否決

다, 佛國寺觀光호밀增築件(但園池는 調査한) 可決

라, 石窟庵本尊白毫復原 黃委員에 委任하여 方案講究키로함

마, 서울文廟 지붕改修工事 可決

二、指定關係

가, 青磁象嵌雲鶴大瓢形瓶重復指定解除申請(國博)國寶 一一六號로 하고 寶物

三四一號는 削除키로 한다.

나, 서울文廟……成均館制度를 保存하기 위하여 全域을 史跡으로 指定한다.

다, 馬山日本城……「本丸」만 保存하고 其他는 解除

라, 水原華寧殿의 史蹟解除를 保留한

三、其他

設計圖檢討……事前에 委員에게 說明키로 하고 保留

指定文化財(寶物 三三四, 三二五, 二〇八)를 東大博物館으로 移管……保留

高靈古墳壁畫保存費補助 可決

辛州山城現狀變更調查報告(落石은 運搬 可한)

建議書(國旗宣揚會(南大門太極章) 및 大韓佛敎曹溪宗(文化財委員)으로 參與

要請)

水原城廓設計變更……可決 但專門委員으로 現地檢討할 것

文化財海外流出防止協調依頼件……可決(金載元委員提案)